

第45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8月3日(木) 午後2時 開式

第45回(臨時會) 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事
1. 閉式

(社會：議事係長 鄭恩秀)

(14時32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지급부터 제45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출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치고 명실상부한 회의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다 새로운 각오로 활기찬 회의의 모습

을 구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8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의 달 8월을 맞이하면서 여느해 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것은 광복 50주년이라는 연륜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 나아가 언어와 역사까지도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치욕의 36년을 마감하고, 그후 온갖 현대사의 우여곡절속에서도,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복의 순간부터 잉태된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 해 나갈 때, 21세기 번영된 통일 새시대는 앞당겨 질것이며, 진정한 광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몇몇 정치인이나 특정인 몇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존중되고, 민의를 기저로 한 여기 계신 마흔두분 의원님들의 뜻이 결집되어서 하나로 모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교육위원 추천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개회전에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의 정견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야말로 한나라를 이끌어 가는 힘의 원동력이요, 근원입니다.

풍요로운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고 번영과 활력이 넘치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저력은, 교육을 통한 지식의 축적과 문화의 창달이 그 초석이며 바탕인 것입니다.

일반행정 못지 않게 교육행정이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45회 임시회도 합의를 바탕으로 조화로움을 창출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鄭恩秀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時42分 閉式)